



보도시점 2026. 6. 22.(월) 14:00
6. 23.(화) 조간

배포 2026. 6. 22.(월) 09:00

‘기상이변 속 꿀벌 살리기’ 다부처 협력 성과 되짚는다

- 검역본부, 5개 기관 공동연구사업 성과관리 워크숍에서 꿀벌 질병 진단·제어 연구개발 성과 발표
- 바로아응애 감수성 변화 조사, 행동이상 꿀벌 현장감별 유전자 진단법, 꿀벌 대사체 분석 등 효과적 방제 및 질병 관리 고도화 기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리는 ‘기상이변 대응 새로운 밀원수종 개발로 꿀벌 보호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부처 공동연구사업* 성과관리 워크숍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꿀벌 질병 대응 연구 성과를 공유한다.

* 참여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꿀벌은 전 세계 농업 생산의 약 30%를 담당하는 핵심 수분 매개체이지만, 최근 기후변화와 이상기온으로 질병과 해충 발생 양상이 변화하면서 양봉산업의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5개 기관은 지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8년간 총 484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꿀벌 보호 및 관리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 중이다.

행사 첫날인 22일에는 각 기관별로 그동안의 주요 성과를 설명하고, 국립농업과학원 주관과제인 ▲이상기온 대응 꿀벌 스마트 관리, ▲건강한 봉군 유지를 위한 꿀벌 최적 영양 분석, ▲기후변화 대응 응애 및 말벌류 등 해충 발생 특성 및 디지털 관리 기술 개발 등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어서 23일에는 검역본부에서 ▲이상기온에 따른 작은벌집딱정벌레 감염증 국내 현황 및 바로아응애 생활사·감수성 변화 조사 ▲행동이상 증상 꿀벌 현장감별 유전자 진단법 ▲기후변화 및 중독물질 노출에 따른 꿀벌 대사체 비교 분석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

이와 함께, 국립기상과학원은 ▲밀원수 개화 예측·예측 고도화 및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립산림과학원은 ▲꿀벌 보호를 위한 밀원자원 선발, 국립생물자원관은 ▲화분매개곤충 인벤토리 구축 등을 발표하여 각 기관의 주요 과제에 대한 협력 성과들을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검역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바로아응애* 감수성 변화 조사는 이상 기온이 응애 생활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방제 시기와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현장 양봉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마비, 기는 증상 등 이상 행동을 보이는 꿀벌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유전자 진단법을 개발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기후변화 및 환경 스트레스에 따른 꿀벌 대사체 연구는 꿀벌의 건강 상태를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바로아응애: 꿀벌 성충과 유충에 기생하여 성장과 생존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날개불구 바이러스(DWW) 등 다양한 바이러스를 매개하여 양봉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대표적 해충

검역본부 최정록 본부장은 “기후변화는 꿀벌의 질병 발생 양상과 해충 분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면서 “검역본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진단·제어 기술 개발과 함께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꿀벌 건강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	책임자	과 장	조윤상	(054-912-0722)
		담당자	연구관	이향심	(054-912-0743)
담당 부서	국립농업과학원 양봉과	책임자	과 장	한상미	(063-238-2841)
		담당자	연구사	최홍민	(063-238-2897)
담당 부서	국립생물자원관 기후·환경생물연구과	책임자	과 장	길현중	(032-590-7158)
		담당자	연구사	이승규	(032-590-7086)
담당 부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특용자원연구과	책임자	과 장	권해연	(031-290-1151)
		담당자	연구관	나성준	(031-290-1162)
담당 부서	국립기상과학원 기상응용연구부	책임자	부 장	김승범	(064-780-6660)
		담당자	연구관	김규량	(064-780-6661)